

한국타이어, 경영목표 하향조정

2/4분기 영업이익 33% 감소 479억원 ... 매출목표 2조1135억원

한국타이어가 환율 하락과 원료가격 급등,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실적이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경영목표 수치도 하향 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06년 2/4분기 매출액이 5205억원, 영업이익은 479억원, 순이익은 44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8월9일 발표했다.

2006년 2/4분기 매출액은 2005년 2/4분기와 비교해 0.7%, 영업이익은 32.8%, 순이익은 23.9%가 각각 줄어든 것이다. 2006년 1/4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4.3%, 순이익은 22.3%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상반기 전체로는 매출액 1조102억원에 영업이익 978억원, 순이익 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타이어는 2/4분기 실적이 환율 하락과 원료가격 상승 등의 악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2006년 상반기 주요 원료인 천연고무 가격이 무려 34% 급등했고 환율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만 300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한국타이어는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되면서 2006년 경영목표 수치를 매출액은 당초 2조1595억원에서 2조 1135억원으로 낮추었고 영업이익도 2610억원에서 1967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4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이 9.2%로 악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출 단가 인상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 악재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09>